

2023. 6. 28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28일 오전 10:00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

국제협력과장	조혜정	2133-5260
아시아팀장	김미선	2133-5277
담 당 자	이우림	2133-5279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2매

서울시장-도쿄도지사 8년 만에 면담

- 오세훈 시장, 27일(화) 도쿄 고이케 유리코 지사와 만나 서울사-도쿄 교류에 대해 논의
- 도쿄에서 관광,뷰티패션 등 서울의 매력 홍보 사실 공유하고, 도쿄 도시재개발 경험 공유 희망
- 한일관계 개선되는 가운데 양 도시간 교류 통한 상호발전의 기대를 도지사에게 전해
- 기후변화 등 대도시 문제와 여성의 활약에 대한 의견교환·세계도시 시장회의에 도쿄 초청

오세훈 시장은 27일(화), 서울의 친선도시인 도쿄를 방문하여 고이케 유리코(小池 百合子) 도지사를 면담하고 양 도시의 공동과제인 기후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 서울시장과 도쿄 도지사 간의 공식 면담은 약 8년 만이다.

○ 도쿄도는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약 천 4백만명(2020년 기준)이 살고 있다. 1988년 9월 3일 서울시와 친선도시(구 자매도시) 협약을 맺었으며 지금까지 35년간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.

오 시장은 도지사 면담 전에 도쿄의 주요 도심재개발 및 공원조성 현장을 둘러보고, 면담 현장에서 도쿄도의 도심재개발 정책에 관심을 표하며 서울시의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- 또한, 세계 대도시가 연계하여 기후변화대책을 위해 노력하는 네트워크인 C40의 운영위원인 두 도시 정상들은 앞으로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·오세아니아 지역의 부의장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두 도시의 긴밀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C40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들의 네트워크로 도쿄, 런던, 밀라노, 몬트리올 등 97개 도시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.
- 오 시장은 지사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활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.
- 이어, 올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시 시장회의(WCSMF) 행사에 도쿄를 초청했다.
- 세계도시 시장회의(WCSMF)는 9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DDP에서 '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포용 도시'를 주제로 세계 각국 도시 시장 등 대표단,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.
- 고이케지사는 국내외 스타트업과 세계도시 리더들이 모여 혁신을 가속시키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벤트인 'Sustainable High City Tech Tokyo(SusHi Tech Tokyo)'를 소개했다.